



전국한우협회

성명서

전화 02-525-1053

팩스 02-525-1054

이메일 025251053@hanmail.net

대한민국 농업의 심장, 전남도청의 수입 쇠고기 급식을 규탄한다 “정부는 공공 급식 식재료에 국내산 농축산물만을 사용하는 지침을 마련하라”

- ☐ 공공기관 구내식당에서 수입 쇠고기가 공공연하게 급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정부가 공공 급식에 국내산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지침을 마련해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 적극 권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 한국농정신문의 농민칼럼에서 한 농민은 전남도청의 구내식당에서 먹었던 질긴 쇠고기의 원산지가 호주산 쇠고기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 ☐ 전라남도는 푸드플랜, 로컬푸드, 공공급식 등 국가 단위 먹거리 사업에서 광역형 지자체로도 선정된 지자체이다. 전라남도과 같이 건강 먹거리와 관련,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자체조차 구내식당에서 수입 쇠고기가 급식으로 제공되고 있다면, 비단 다른 지자체의 상황도 명약관화(明若觀火)할 것이다.
- ☐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존 먹거리 시장에서 탈피하여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며 탄생한 정책이 바로 푸드플랜이다. 정부는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의 판로를 확보하여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농축산물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국민의 식문화와 복지, 환경부문까지 통합관리하여 식량 주권을 지키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겠다고 표방하고 있다.
- ☐ 그러나 농업의 심장부인 전라남도 도청에서 값싼 수입 농축산물 식재료가 버젓이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등잔 밑이 어두운 격의 공공기관의 수입 농축산물 급식은 우리 농축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공공기관부터 우리 농축산물을 외면한다면 국내산 농축산물이 설 자리는 어디란 말인가?
- ☐ 더욱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문재인 정부 첫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자 대통령이 추구하는 푸드플랜정책을 구체화한 장본인이다. 따라서 전국한우협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즉각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수입 농축산물 식재료 공급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농축산물 사용을 전면 추진하는 지침을 마련하라! 또한, 이를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 적극 권고하여 공공기관 급식의 질을 높여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